

색다른 공간으로 독자만남 이끄는 출판사들

‘진선 북카페’ ‘한길 북하우스’ 열어…대형서점 등 문화사업에 재투자하는 경향

출판사가 독자를 부른다. 책을 서점에 내놓고 간택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마음껏 활개칠 마당을 제공한다. 지난 10월 3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진선출판사(대표 장인행)에서는 출판인과 독자들의 조용한 잔치가 있었다. 진선출판사가 ‘진선 북카페’(대표 이동교)를 연 것이다. ‘책과 함께 하는 편안한 공간’이라는 모토답게 건평 60평 2층 목조건물에 구석구석 책을 놓아두었다.

책을 ‘느끼는’ 공간

1층에는 문학·역사·출판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2층에는 자연에 관한 책과 스포츠, 문화·예술관련 책을 모았다. 또 2층 한쪽에는 어린이책을 꽂고 창가에는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려넣은 조약돌을 진열해 아이와 엄마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북카페라고 하지만 실제로 카페에서 책을 읽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만 책과 더불어 문화를 ‘느끼는’ 공간으로 자리하게 되길 바란다”고 이동교 대표는 말한다. 물론 출판사가 운영하는 카페인 만큼 출판과도 무관할 수 없다.

출판기념회를 좀 색다르게 하려 하거나 저자와의 만남을 계획하는 출판사에 문을 활짝 열어놓았고, 독자들이 많이 찾는 책은 판매도 할 생각이다. 60평 정도되는 넓은 마당을 활용해 전시회나 이벤트도 가질 예정인데, 주변에 화랑과 출판사들이 모여 있어 출판인이나 문화계 인사들의 정보공유의 장으로도 효용가치가 높으리라는 기대다.

한길사(대표 김언호)는 얼마전 색다른 공간을 마련했다. 경기도 광주의 ‘한길북하우스’가 그곳이다. 본래 창고였던 곳을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 올 여름까지 꼬박 1년 동안 고치고 다듬어서 독자와 호흡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한길사 기획실의 이승우씨는 “예전에 독자와의 만남을 시도했던 역사기행이나 역사강좌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됐다. 독자·학계·출판 관계자들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힌다. 실제로 지난 9월 5일에는 이곳에서 출판캠프를 열었고, 11월 1일 개관식 겸 한길사 필자와 역자, 관계자들의 조출한 모임을

출판사마다 색다른 공간을 마련해 독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꾀하고 있다. 한길사가 경기도에 ‘북하우스’를 개장한 데 이어 진선출판사는 종로구 삼청동에 ‘북카페’를 열어 책과 함께하는 편안한 공간을 제공했다. 출판사들이 독자를 부르는 다양한 시도는 출판물 둘러싼 문화사업의 재투자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가져 출판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학계간 교류의 장으로서 최신 정보를 나눌 수 있고, 특정 책의 주제 아래 독자들 모임을 꾸려 출판사와의 직접 소통을 가능케 하는 장으로서, 또 필자들이 사념없이 집필에 전념할 수 있는 집필실로도 개방해 출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현재 한길사 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도철학 독자모임, 〈한길 그레이트북스〉를 중심으로 한 알기 쉬운 고전강의, 〈위대한 한국인〉과 〈로로로〉 등 인물에 접근하는 강좌 등도 이곳에서 가질 예정이다. “워낙 외진 곳에 있어 찾아오기 쉽게 교통편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이승우씨는 말한다.

서점공간 투자도 많아져

출판사가 직접 서점을 열거나 투자를 하는 일은 흔한 일이다. 서점은 출판사가 생산한 책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과 관심을 읽을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신도시와 강남에 대형서점을 직접 내거나 투자하는 출판사들이 많아졌다. 세계사(대표 최선호)가 투자해 지난해 문을 연 고양시 일산의 화정문고(대표 최광호)는 지난 11일 ‘책의 날’ 기념행사 때 큰 활약을 했다. ‘초등학생 독서백일장’과 ‘책의 바다 속에서 책찾기’ 대회를 열어 독서열기를 고양시켰던 것.

“서점과 출판사의 이익이 둘이 아닌데도



지난달 31일 문을 연 종로구 삼청동의 ‘진선 북카페’, 경기도 광주에 창고를 개조해 만든 ‘한길 북하우스’, 그리고 일산 주민들과 호흡을 함께 하고자 문을 연 고양시의 화정문고. (위부터)

이제까지 출판사가 서점을 배제하는 경향이 짙었다”는 세계사 최선호 사장은 서점에서의 투자가 곧 출판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독자들이 모이는 서점을 통해 출판사는 독자들의 관심을 읽고, 또 책을 생산한 곳으로서 저자초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사회전반의 독서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효과

를 얻을 수 있다.

화정문고는 ‘책의 날’ 행사를 계기로 매달 첫 토요일에 책찾기 대회를 실시하고, 서점을 찾는 가족단위 손님을 상대로 갖가지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서점내 소란이나 무질서 같은 운영상의 어려움은 많지만, 그런 행사를 통해 독자들의 독서욕구를 자극하고

가을철 출판인들 수상 소식 풍성

'금관문화훈장'에 정진숙씨 등 서훈

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이다.

일산의 마두역에 자리잡은 한양문고(대표 홍승택) 역시 한양출판이 지분참여를 한 대형서점. 지난 6월 문을 연 이래 독자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는 서비스로 호평을 받고 있다. 서울에 직장을 가진 중산층이 많이 사는 곳이라는 일산의 특성을 파악하고 낮시간 아이에게 묶여 있는 주부들을 위해 도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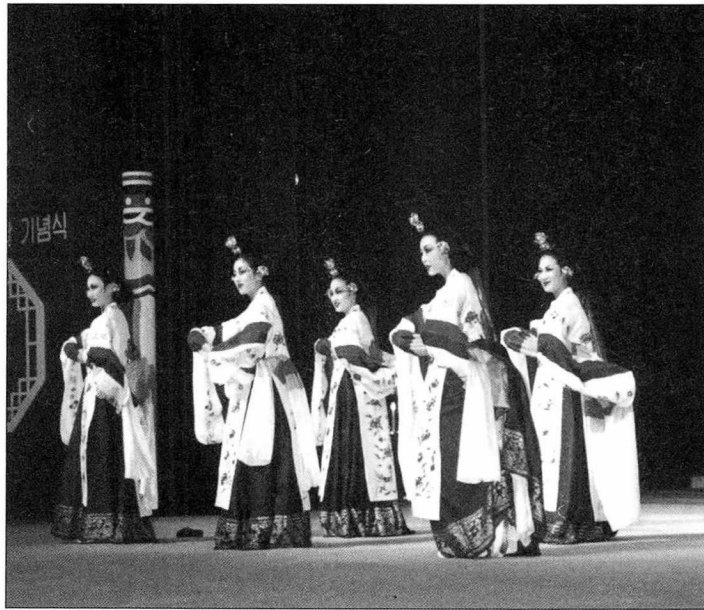
"한 권의 책이라도 필요한 곳까지 음식배달하듯 배달한다. 현재는 하루 40건 정도지만 점차 늘어날 추세"라는 김현국 부장은 한번 책을 배달받은 독자는 서점에 더 자주 온다고 말한다. 이같은 적극적인 영업은 교통사정이 비교적 원활하고 낮에 집을 비울 수 없는 가정이 많은 신도시만의 특성을 십분 활용한 전략이다.

젊은이가 많이 모이는 강남에 자리잡은 시티문고(대표 송영석)도 지역의 특성을 서점 운영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 베스트셀러 출판사로 입지를 굳힌 해냄출판사가 운영하는 이 서점은 컴퓨터세대 독자층을 고려해 컴퓨터 서적 코너에 충실한 목록을 갖췄고, 행사도 다채롭게 준비한다.

서점이 상권의 중심에 들어와야 불황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송영석 사장은 "6월 개장 후, 지난 9월까지 전유성·마광수·이면우·이찬진·이현세 등 젊은 이들의 흥미를 끌 만한 저자들을 초대했다"며 인근 주민들을 서점의 고객으로 끌어들이는 전략 세우기에 골몰하고 있다. 내년 2월 쯤에는 역시 젊음이 넘실대는 성북구 돈암동에 시티문고 2호점을 낼 계획이다.

과거에는 출판사들이 출판으로 돈을 벌면 빌딩을 지어 임대업을 하거나 요지에 땅을 사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출판업의 어려움을 상쇄하려 했다. 출판관계자들은 "출판 경영자의 문화적 역량이 커짐에 따라 자신의 경험을 투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문에 재투자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며 출판문화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이런 움직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 이현주 기자



10월20일 '문화의 날' 기념행사와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정진숙, 보관문화훈장을 받은 윤석금,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홍우동씨, 중앙언론문화상을 받은 전병석씨.(왼쪽 왼쪽부터)



'문화의 날'을 맞아 각종 문화관련 시상식에서 출판인들의 수상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다. 지난 10월20일 제25회 '문화의 날'을 맞아 국립중앙극장 대극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정진숙 을유문화사 대표가 명예의 '금관문화훈장'을 서훈받았다. 또 '보관문화훈장'에 윤석금 웅진출판 회장, '화관문화훈장'에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부회장이 각각 수상했다.

이어 10월29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권혁승)가 마련한 제8회 간행물윤

리상 시상식에서도 출판인들이 수상했다. 공로상 부문에 정진숙 을유문화사 대표가 학술·인문교양서 발간으로 문화창달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선정됐으며, 출판 부문에는 고 한창기 전 《뿌리깊은나무》 발행인이 독창성 있는 편집으로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헌을 높이 사 수상됐다. 한편 지난 10월10일에는 중앙대 '중앙언론문화상' 출판부문에 전병석 문예출판사 대표가 선정돼 시상식을 가졌다.

다》(유순영/답게) 《너는 가능성이다》(안병무/사계절)

▲역사(3종) 《이순신과 히메요시》(가다노 쓰기오/우석) 《의사 전명운》(장백일/집문당) 《부끄러운 문화답사기》(기록문화회/실천문학사)

청소년보호법과 유해간행물 세미나 간행물윤리위원회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권혁승)는 지난 10월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소년보호법과 유해간행물"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청소년보호법 시행 이후 청소년 유해 간행물의 실태와 문제점>(이태동·서강대 교수)과 <전자출판물과 청소년>(최충욱·경기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에 이어 각계 인사들의 토론이 이어져 폭력 음란성 간행물로부터 청소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논의됐다. ◆

출협, '이 달의 청소년도서' 발표 철학·종교 등 5개 분야 20종

대한출판문화협회는 97년도 3/4분기 '이 달의 청소년 도서' 20종23책을 선정 발표했다. 선정된 도서는 다음과 같다.

▲철학·종교 (2종) 《신과 악을 다루는 35가지 방법 1, 2》(김창민/자작나무) 《고사성어로 배우는 현대인의 지혜》(이춘배/가원)
▲사회과학(2종) 《토종문화와 모든살이》(홍석화/학민사) 《대학을 가든 안가든》(박윤정/도솔) ▲과학·기술(3종) 《김용운 김용국 교수의 수학클리닉》(김용운 외/김영

사) 《천문학을 흥미롭게 하는 혜성의 신비》(박병덕 외/다섯수레) 《숨겨진 과학의 역사》(O. 색스 외/해냄)

▲문학·예술(10종) 《울엄마 1, 2, 3》(홀트아동복지회/세계사) 《슬픈 카페의 노래》(C. 매컬러스/문예출판사)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Y. 가이더/현암사) 《선악이 모두 나의 스승이라》(최승범/석필) 《김석철의 세계건축기행》(김석철/창작과비평) 《사랑하는 사람을 남기고》(박재삼/오상) 《사랑할 땐 별이 되고》(이해인/샘터사) 《1318 미술여행》(김종수/동녘) 《신화는 끝나지 않았